

교제와 나눔

****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****

- **JC Connect:** 6월 28일(토) 16시 Teestube
- **라합 1나라 모임:** 6월 26일(목) 10시, 박성희 님 가정
- **생일:** 석혜진, 한정우, 강병주, 강수정
- **담임목사:** 휴가(~6월 27일까지)

◆말씀일기 일정

일/대상22:1-19	월/대상23:1-32	화/대상24:1-31	수/대상25:1-31
목/대상26:1-32	금/대상27:1-34	토/대상28:1-21	일/대상29:1-19

◆114 운동-하루(1) 한번(1) 말씀일기 & 성경 (4)장 통독

- 성경 300독 대행진: 248독(정기승 1독)

◆ 예배위원 안내 ◆

	6월 22일	6월 29일	7월 6일	7월 13일
예배기도	황선우	김대진	권미정	황선우
안내위원	예배부			
헌금위원	백윤정 민경웅		나지홍 김종권	
예찬위원	밥상 여섯	밥상 일곱	밥상 하나	밥상 둘

42-25호

2025년 6월 22일



“네 자신을 연단하라”(딤후 4:7)



주일예배 11:45 Teestube 소망방
14:00 Mutterhauskirche
유초등부 14:00 Teestube 평화방
청소년부 14:00 Teestube 믿음방
청년부 15:30 Teestube 믿음방

토요기도회 07:00 Teestube 믿음방



담임/ 손교훈 목사 Kyo-Hoon Sohn
☎ 02131-5249 186 HP. 0176-5779 1004
교육/ 이동훈 목사 HP. 01525-2367 629
교육/ 박승은 목사 HP. 0157-3845 5550
선교협력/ 이광열 목사 HP. 0157-7388 7498

1983년 5월 8일 창립

뒤셀도르프선교교회

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.de

교회당 주소 Alte-Landstr. 179, 40489 Düsseldorf

주 일 예 배

인도: 박승은 목사

※입례송/Eingangslied	왕이신 나의 하나님.....	다	함	께
※예배부름/Eingangsgebet		인	도	자
※찬송/Gemeindelied	38장	다	함	께
※신앙고백/Glaubensbekenntnis		다	함	께
성시교독/Wechselwort	교독문 13번.....	다	함	께
찬송/Gemeindelied	310장.....	다	함	께
기도/Gebet		황선우	청년	
찬양/Chor	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.....	찬	양	대
성경봉독/Text zur Predigt	신명기 34:9, 역대상 22:2-5.....	인	도	자
설교/Predigt	은혜를 은혜로	박승은	목사	
찬송/Gemeindelied	370장.....	다	함	께
봉헌/Kollekte.....		다	함	께
교제/Bekanntmachung		다	함	께
※주기도송/Vaterunser		다	함	께
※축도/Segen		박승은	목사	

※ 표는 일어섭니다.

교회 구좌

Ev.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.V.

Bank: Stadtparkasse Düsseldorf

IBAN: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구좌

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구좌

말씀일기 (역대상 22:1-19, 박승은 목사)

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해두는 장면이 나옵니다. 이스라엘의 왕으로서, 그리고 평생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했던 왕으로서 성전건축은 그에게 정말 이루고 싶은 일이었지만,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, 그 역할을 아들인 솔로몬에게 양보합니다.

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또다른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서도 보여지는 모습입니다.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평생의 목표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으나,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 경계 비스가산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.

그들이 어떠한 원망도 없이, 평생 그들이 이루고 싶었던 업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비결은, 하나님 없이는 결코 그 자리까지 올 수 없었던,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자각,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솔로몬을 이끌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. 무엇보다 그들은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.

그런 점에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,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, 이보다 복된 인생이 있을까요? 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, 받은 은혜를 언제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,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기쁘고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◆ 지난 주 봉헌 내역(6월 15일 - 6월 21일) ◆

십일조	감사헌금
권덕기, 이재완, 석혜진, 윤영숙	신형만, 무명
총액 1046.40€ = 946.40(예배당) + 100.00(온라인)	